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인도순례 참가자에게 완보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상월결사 印순례 해단…'대학생 전법' 선언

5월 2일, 동참자 108명 전원에 자승 스님, 완보증서 직접 수여 대학생 전법위 자문위원단 위촉 진우 스님 "전법의 길엔 모두 도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완보증을 수여받은 참가 스님과 자승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붓다의 길마다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걸음마다 차별없는 평등으로 신심과 원력을 체득한 인연공덕을 기립니다.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사부대중의 지극한 서원을 기립니다."

불교중흥과 생명존중을 발원하며 43일간의 인도순례를 떠났던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인도순례 여정을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해단식을 봉행했다. 이날 해단식은 미래 한국불교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향한 전법포교를 선언하는 자리기도 했다.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개최된 해단식에는 동참자 108명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여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총도감 호산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지난 43일간의 인도 순례를 회상했다. 스님은 "불교중흥과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는 대승적인 정진이었다"고 회고하고 "인도순례에서 쌓은 신심과 원력은 전법과 불교중흥의 중요한 발판되어줄 것"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자승 스님은 앞으로 대학생 불자에게 활력을 전해주는 일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대학생 불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어린이 청소년을 이끌어갈 길잡이"라며 "부처님 법을 전해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전하는 훌륭한 전법 행자들에게 관심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순례를 통해 모두가 쌓아온 원력을 다짐하며 내가 얻은 것을 사람들과 사회에 전해야할 것"이라며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부처님 법을 전하는 큰 기쁨으로 출발하자. 사람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밝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순례단은 전인미답의 부처님 나라 인도에서 성지 도보 순례의 길을 열었고 이를 통해 종단은 부처님께 다가가는 길에 우뚝 서게 됐다"면서 "종단은 순례단의 소중한 전법 원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 포교활성화 역시 종단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순례를 통해 염원한 불교중흥의 길, 전법의 길에서 모두 함께 도반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치하도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대중 전원에게 완보증서를 전달하며 순례공덕을 치하했다. 또 상월결사가 불교중흥을 발원하며 진행한 마곡사 예비순례, 국난극복 자비순례, 백담사 예비순례,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마음방생 평화순례, 상월결사 인도순례 등 모든 순례에 빠짐없이 동참한 호산 스님, 원명 스님, 대우 스님, 정충래, 이태경 씨 등 14명에게 원만정진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감사패를, 108원력문 제작 공로자인 윤재웅 동국대 총장,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 사무총장, 지정학 동국대 사무처장, 장영섭 불교신문 부장, 김정은 동국대 출판문화원 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상월결사는 인도순례 해단식 후 '대학생 전법 비전 선언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기도 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돈관 스님은 대학생 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 다양한 목표를 공개했다. △수도권 10개 대학 불교동아리 신설 △지역 대학마다 지도법사 활동 장려 △전국 의과대학 불교학생회 연합회 결성 및 연합수련회 워크숍 개최 △대학생 인도성진순례 진행 등을 바탕으로 전법의 실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 5명과 전법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은 △범해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돈관 스님(동국대 이사장) △덕문 스님(BBS불교방송 이사장) △윤재웅(동국대 총장) △채석래(동국대 의료원장)이며 전법위원은 △능원 스님(군종교구장)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지도법사단(원명, 설도, 본오, 대우, 하림, 재안, 주석 스님) △문종 스님(파라미타 사무총장) △영일 스님(정광고 교법사) △정충래(동국대 이사) △이상훈(교수불자연합회장) △박기련(동국대 건학위 사무총장) △지정학(동국대 사무처장) △장영욱(상월결사 법인 사무국장) △김광기(동국대의료원 기획처장) △이학주(동대부여고 교법사) △변대용(대불련 동문회장) △조용석(대불련지도위원장) △유정현(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서는 상월결사 발전기금으로 용화사 주지 지용 스님과 고(故) 자성 스님이 2500만 원을 쾌척했으며 이수홍 거사가 1억 원을 희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청래 의원 "문화재 원형 보존 지원"

5월 2일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놓고 불교계와 마찰을 빚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찰 문화재 원형 보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 최고위원은 5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서실장 서봉 스님과 이규민 前 의원이 배석했다.

5월 4일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예방에서 정 최고의원은 사찰 무료 개방 후 나타날 문제들에 대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 최고의원은 "더 많은 국민들이 사찰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 원형 보존 등에 대한 지원과 개선에 대해 국회 차원의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사찰 무료 개방에 따른 관람객 급증으로 수행환경 침해, 문화재 관리 난항 등 여러 문제들이 예상된다"면서 "은해사의 경우 무료 개방 후 관람객이 3~8배까지 늘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찰을 찾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한 문제도 많다. 제도 보완에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추본, 평화통일도량 3사 순례 시작

4월 29일, 안동 광흥사 등 순례 87개 통일도량 방문 목표로 활동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이하 민추본)는 4월 29일 안동 광흥사 등지에서 '평화통일도량 3사 순례'를 진행했다.〈사진〉

'평화통일도량'은 지역사찰 및 불자들의 평화통일 의식확산과 통일활동 대중화를 위해 민추본과 함께 정진하는 도반 사찰로 협약 후 연대활동의 첫 사업으로 진행한다. 순례를 통해서 평화통일도량은 협약사찰임을 다시 인식하고 순례에 참가하는 민추본 회원 및 불자들은 순례에서의 '평화통일법회'를 통해 평화통일 활동을 지속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첫 순례에는 민추본 회원 등 35명이 참가, 안동 광흥사, 봉정사, 연미사를 방문했다.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은 "인류의 모든 평화가 중요하듯이 남북평화 또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민추본에서 평화통일도량 협약요청을 했을 때 평화를 실천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화를 발원하는 도량인 봉정사에서는 당연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회원들에게 민추본의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연미사 주지 덕암 스님의 순례단을 환영하는 인사말씀과 제비원 미륵불 유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광흥사에서는 주지 범종 스님 법문, 평화통일발원문 낭독, 평화통일발원등 전달 등 '평화통일법회'가 진행됐다.

민추본은 2021년부터 '평화통일도량' 조직사업을 시작, 현재 87개 도량과 협약 중이다. 이번 순례를 시작으로 도량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 목표다.

임은호 기자



추 한국불교와 불교언론을 위한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

김주일 현대불교 편집국장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법보신문 편집국 일동

